



공장 내부야말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천(源泉)이 있다

鈴木 了 / 大和그라비어(주) 임원 ·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지만 / 화신기계공업(주) 기획실장

본 고는 일본 大和그라비어(주) 임원이자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鈴木 了 씨가 일본 포장 타임지에 연속으로 기재한 칼럼으로 화신기계공업(주) 김지만 기획실장이 번역했다. 본 고를 통해 일본 포장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라비어 인쇄 업계에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12) 「수입(收入)」과 「소비(消費)」의 명확한 구별

당사에서는 컬러전용의 인쇄기도 있지만 롯트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인쇄기계가 멈춰있는 시간은 겨우 7~8분이다.

잉크판(Ink pan)을 그 상태 그대로 낮추고 커버(cover)를 써운다. 동판을 내리고, 다음 동판(版)은 항상 준비된 동판과 바로 맞교체 작업을 한다. 실린더는 하나하나 톰보마크를 보지 않는다. 항상 전용 대차(台車) 우측을 기어사이드(Gear Side)로 정해 놓으면 된다. 그 다음은 동판을 장착하고 바로 잉크판을 올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된다.

타렛의 A축(軸), B축(軸)을 완벽하게 미리 설정 할 필요는 없다. A축 타렛 작업이 끝날 때까지의 B축을 설정하면 된다.

당사에서는 JIT(JUST IN TIME-적기부품 공급체계)의 실시에 의해, 인쇄 유니트(Unit)에 조색실에서 만든 잉크를 잉크판에 붓고 기계를 가동하면 한 번에 OK가 나와 정식 인쇄로 들어가는 경우가 90% 이상이 가능하다.

이런 공정으로 5대 반의 인쇄기로 하루에 70~80의 아이템을 소화(消化)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은 길게 요하는 사람이 1시간, 짧게 요하는 사람은 30분이라고 한다. 이 사이에 부인은 다능공(多能工), 다공정(多工程)을 가정에서 집 중적으로 떠맡고 있다. 이것은 남자에게는 불가능하다.

일반 가정에서 “달걀이 너무 익었다”든지, “된장국의 건더기가 없다”든지, “밥이 굳어서 먹을 수 없다”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는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다.

화장실에 전기를 켜두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로 있다면 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것이다.

「우리 집 아빠는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할 것이다.

견실한 가정 경영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회사에 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켜둔 채로 있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낭비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기업, 공장 내부가 개선을 진행시켜야 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낭비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개선해야 될 항목이 한없이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지만 물건 생산하는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회사의 크고 작은에는 관계 없다. 단,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선이 잘 안되, 중소 기업 이하의 규모에서는 오히려 개선하기 쉽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핵심이 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의 장(場)과 소비의 장(場)을 명확하게 나눠달라는 것을 사원에게 자주 말한다. 회사에 한 걸음을 들여놓은 시점부터 그것은 수입의 장이 된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한 발짝 나아가면 소비의 장만 될 뿐이다.

자택에서는 사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해서 버려도 괜찮다. 자택은 소비의 장 밖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 녀석, 하찮은 물건을 샀구나」라고 해도, 그것은 취미가 다르기 때문이고, 본인이 유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을 격려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입의 근원인 회사 내에서는 쓸데없는 낭비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ko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